



이탈리아 현대사상으로의 초대

오카다 아쓰시 지음
—
김상운 옮김

월간 멀티튜드
multitude.co.kr

イタリア現代思想への招待

이탈리아 현대사상으로의 초대

오카다 아쓰시(岡田温司) 지음

김상운 옮김

일러두기

1. 이 책은 岡田温司의 *イタリア現代思想への招待*(講談社, 2008)의 완역이다.
2. 필자가 인용한 글 중에서 원문을 입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문의 번역본을, 영어 등의 번역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것의 한국어 번역본을 각주에 옮겨 두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자의 번역을 그대로 수용했다.
3. 번역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따랐다.
 - 원문의 《 》은 가급적 « »로 표기했다. 또 ‘ ’ 안에 다시 《 》가 있을 때는 그대로 표기했다. 인용의 「 」은 “ ”로 표기했다.
 - 책 제목은 『 』으로 했고, 논문 제목은 「 」로 했다.
 - [] 안에 표시된 것은 모두 원어의 표시이고, 옮긴이의 것은 [*]으로 했다. 또한 문맥상, 혹은 데리다의 대답이나 응답 속에 특별히 다뤄지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굵은 글씨를 많이 사용한 대목도 있다.
 - 말의 관련을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 < >를 때로는 사용했다.

들어가며

어쩌면 이탈리아인은 우리와는 또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은 대체로 그들이 시간 엄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많은 미국인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일본인들의 대부분도 그렇듯이, 오로지 현재와 미래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그들에게 현재라는 시간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바르부르크 식의 말투를 굳이 하자면, 아마 태곳적 기억의 흔적이 다양한 형태로, 눈치 채지 못한 채, 그들의 신체 자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침 로마라는 도시의 현재가 바흐친이 말하는 크로노토포스^{chronotopos}처럼, 복수의 시공을 폴리포닉^{polyphonic}하게 반향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길기로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점심시간—역시 대도시에서는 단축되고 있다고는 해도—에 인적도 드문드문 하고, 그저 오후의 태양만이 짹짹 쏟아지고 있는 옛 시가지의 광장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나 같은 이방인마저도 불가사의한 감각에 습격당하는 경우가 있다. 다분히 똑같은 체험을 한 독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강렬한 은백색 불빛과 묵묵하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속삭이고 있다는 착각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과거에 니체를 곤혹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로잡았던, 오후 광장에서 과거의 다이몬들의 속삭임 아닐까. 형이상학적 회화^과1)의 거장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가 그려낸 기묘한 광장은

사실 그다지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이탈리아의 광장에서 체험하는, 뭐라 형용하기 힘든 감각과 어딘가 닮아 있다. 거기서는 이 화가가 그려낸 광장과 비슷한 가운데 복수의 과거가 현재와 교차하며, 이질적인 것이 같은 공간 안에서 동거하고 있다. 즉, 아나크로니(시대착오)와 에테로토피(혼재향)가 바로 거기서 일상적으로 출현하며, 영원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어지는 네 개의 장은 현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사상가들의 꺾기에, 오후의 광장에서 출몰하는 다이몬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가에 관한, 내 나뉠대로의 자그마한 보고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아감벤 등 매우 일부의 예외를 별도로 치면, 아직 일본 사람들에게 그다지 친숙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상가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다이몬들의 속삭임은 그들의 입을 통해, 현실 사회가 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도 확실하게 응답하게 한다. 즉, 아나크로니 때문에 액추얼리티 actuality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상한 역설에 아마 이탈리아적 다이몬과 그 으뜸가는 이 나라의 현대사상의 최대 특징과 매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아나크로니하면서도 액추얼한 사유의 문으로 초대하겠다.

1) [웁긴이] Pittura Metafisica, 한자로는 形而上繪畫(형이상회화).

/ 목차 /

들어가며

1장. 이탈리아 현대사상의 조감도

네그리 vs 카차리 / 부정적인 것의 도래 : 1970년대 / 정치의 탈구축
과 ‘약한 사고’에 관해 : 1980년대 / ‘공동체’와 ‘생명정치’ : 1990년대
이후 / 여성의 사상가들 / 종교를 둘러싸고 / 에스포지토의 세 개의
연작 : 코무니타스, 이무니타스, 비오스 / 아감벤과 ‘잠재력’

보론 : 『아웃 아웃』의 반세기 / 니체 르네상스 / 카를 슈미트와
‘부정의 사유’ / ‘안락사’의 탈구축 / 테러와 공포 / ‘생명정치’,
‘생명미학’ /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계획

2장. ‘제국’과 ‘유럽’에 관해 : 카차리와 그의 사상

카차리의 ‘게임’ / 지금 왜 ‘유럽’인가? / 유럽의 ‘최후=고민’ / 카차리
의 ‘유럽’ / 유럽의 ‘아곤’ / 음악의 ‘다도해’, 정치의 ‘다도해’ / 기독교
의 탈구축과 ‘유럽’ / ‘장’의 이름으로서의 ‘경계’ / 도시의 에토스, 베
네치아라는 모델 / 아이콘과 천사

보론 : 포네와 로고스 / 메시아주의와 종말론

3장. 기독교의/에 대한 물음

두 명의 선구자: 파레이손과 퀴초 / 자유와 악 / 신의 패배와 불가능한 메시아 / ‘옅’이라는 형상 / 고통의 경험과 ‘유한한 것의 윤리’ / ‘세속화’에 관해 / 허무주의와 ‘케노시스(신성포기)’

4장. 아이스테시스의 잠재력

아이스테시스의 잠재력 / 이탈리아의=라는 차이 / 이탈리아의 포스트모던, 포스트모던의 이탈리아 / 에크리튀르의 다양화와 ‘저자의 죽음’ / 포스트모던과 네오바로크 / 포스트휴먼을 둘러싸고 / 이미지의 범람 / ‘감탄’과 ‘송고’
보론: ‘살’의 행방